

“추가 핵실험·수소폭탄 실험 할 수도”

김정일위원장 ‘비공식 대변인’ 김명철 주장

“미국, 선제공격하면 자살행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회장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제일교포 김명철 박사는 12일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물리적 대응조치는 추가 핵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동통신입니다’에 출연, 미국의 압력에 맞선 북한의 첫 번째 조치로 추가 핵실험을 꼽은 뒤 “두 번째로는 그 규모를 확대하고 수소폭탄 실험도 할 수 있다”고 말 했다.

그는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1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결의, 우리를 제재와 봉쇄로 대면하는



완화하라는 뜻이 아니라며 “우리(북한)가 (핵실험을) 가짜로 했는지, 진짜로 했는지 다시 한 번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번에는 김정일 혁전략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우리가 지든가, 미국이 지든가 하는 문제”라고 놓았었다.

김 박사는 이번 핵실험이 미국과 ‘대화 카드’가 아니라 ‘자위권 수단’이라면서 “민일(유엔 안보리에서) 결의, 우리를 제재와 봉쇄로 대면하는

/정후기자 who@kwangju.co.kr

그것은 전쟁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한반도의 운명이 일주일 이내에 다 결정될 것”이라며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하면 그것은 미국의 자살 희망서”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선제공격 시 북한이 남한에 핵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형편으로는 우린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도 출연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언급한 물리적 대응조치는 추가적인 핵실험이라며 “이번에는 규모를 확대해서.. 저번에는 경량 핵실험인데 이번에는 더 크고 많이 있다. 수소폭탄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후기자 who@kwangju.co.kr

BIE 사무총장 17일 여수 방문

로세르탈레스(V.G.Loscertales)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이 오는 17일 2012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여수를 방문한다.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16일부터 19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전부 고위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박람회 유치 의지를 재확인하고 직접 여수에

들러 박람회 부지 조성 현장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여수시는 17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BIE 사무총장 초청 지방후보지 위원의 2012여수세계박람회 추진상황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지자체 투·융자 사업 ‘주먹구구’

지방재정심사위, 47개중 15개 사업만 적정처분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추진하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가운데 상당 수가 재정규모 방안이나 타당성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신청한 47개 투·융자사업을 대상으로 ‘2006년도 하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32%인 15개 사업만 적정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32개 사업(68%)에 대해서는 28건이 조건부 의결, 4건은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심사결과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화순군의 ‘정암 조광조 적려우하

비 정비사업’은 사업타당성이 결여되고 재원확보 방안이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상산의소 복원정비사업’은 사업지 지정 후 다시 추진하도록 재검토 처분을 받았다. 또 고창군과 영광군의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도 사전타당성 검토 후 재상정토록 재검토 처분이 내려졌다.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남 한방 산업 진흥원 설립’과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은 예산과 흥보관 건립사업은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타당성 용역결과와 반영 후 국비를 확보해 추진 톈록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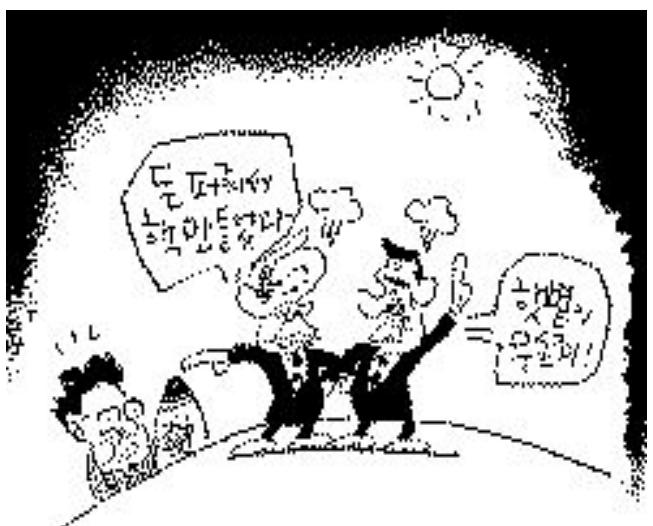
또 지난 2002년 시작된 장성~고창 간 17km 고속도로 공사 잔여 사업비

22억원이 배정돼 내년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일반 국도의 경우 보성우회도로의 내년 사업비 107억원, 해남 문내~화산 사업비 163억원이 각각 확보돼 연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인 순천의 중증~왕지간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77억원도 배정돼 내년에 공사 마무리가 가능하

을지만령

- 김종우



北美 악연 만큼이나 질기다

북핵 위기 닥치면 누굴? 男 “생사고락 할 여성” 女 “해외도피 할 남성”

북한 핵실험 등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남성은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여성을, 여성은 영주권 등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남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는 9일부터 11일까지 미혼남녀 517명(남 272명, 여 245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한 결과 ‘북핵 사태’ 등 위기상황에서 평상시에 비해 더 중요시하는 배우자 조건’을 묻는 질문에 남성 38.0%가 ‘생사를 함께 나눌 책임의식’이라고 응답했고, 여성은 39.8%가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해외기반, 연고’로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회 산자위에서는 20일 한국산업

광주시-주한 美상공회의소

업무제휴 양해각서 교환

전국 지자체론 처음

광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업무제휴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웨인 철리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12일 광주시청 상황실에서 업무제휴 양해각서(MOU) 조인식을 갖고 상호 경제협력과 교류확대, 우호증진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주한 미 상의가 지난 5월 대구상의와 업무제휴를 맺은 적은 있으나 일선 지자체와의 협약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기관은 양해각서에서 ▲상호 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한 친선 강화 ▲상호 교류 촉진과 각종 자료 및 정보 교환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상호 투자유치 협조 등에 합의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국내에 진출에 있는 2천300여 미국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기업동향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주한 미 상의가 주최하는 정기 세미나 및 주요 경영자 초청행사 참석, 광주지역 기업의 투자정보 홍보 등도 기대된다.

시는 이와 함께 광주상의와 주한 미 상의간의 제휴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기준 미 상의 회원사뿐만 아니라 한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미주지역 기업의 유치, 한미간 무역증진 등 포괄적 교류협력 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innews@kwangju.co.kr



박광태 광주시장이 12일 오전 광주시청 상황실에서 웨인 철리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업무제휴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내년 무안공항·장성~고창 고속도 완공

전남지역 SOC 대폭 확충

보성우회도로·해남 문내~황산간 사업비도 확보

내년에 무안공항과 장성~고창 고속도로가 완공돼 전남지역 사회간접자본이 크게 확충된다.

1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08년 내년 사업비 107억원, 해남 문내~황산간 사업비 163억원이 각각 확보돼 당초 계획보다 1년 빨리 완공된다.

또 지난 2002년 시작된 장성~고창 간 17km 고속도로 공사 잔여 사업비

22억원이 배정돼 내년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일반 국도의 경우 보성우회도로의

내년 사업비 107억원, 해남 문내~

황산간 사업비 163억원이 각각 확보돼 연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인 순천의 중증~왕지간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77억원도 배정돼 내년에 공사 마무리가 가능하

게 됐다. 여기에다 65억원이 필요한 광수수어법 예비수로 잔여 공사 사업비도 내년 예산에 반영돼 2007년 말까지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년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총길이는 3천327km로 올해의 3천106km에 비해 221km가 확대되며 내년 완공되는 장성~고창 고속도로는 서해안선과 호남선을 각각 동서로 연결한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국감 일정

▲19일=전남도교육청, 광주교육청, 전남대 누리사업 시찰.

▲20일=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지사, 경제자유구역청 방문 및 융촌단사 시찰.

▲20일=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24일=광주고법, 광주고검

▲24일=영광원자력본부

▲25일=전남체신청, 광주기상청

국감 시작... 19일 광주·전남 교육청

국회 국정감사가 1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실시된다. 당초 11일부터 이달 30일까지로 예정됐던 이번 국정감사는 북한 핵실험 파동으로 인해 이틀 연기됐다.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19일 광주·전남 교육청을 시작으로 20일 광주지방국세청, 24일 광주고법·광주고검, 25일 전남체신청 순으로 진행된다.

국회 산자위에서는 20일 한국산업

단지 여수지사에 대한 국정감사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및 융촌단사 등을 둘러보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또한 국회 교육위는 19일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뒤 전남대 누리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현장을 시찰할 계획이며 국회 과기위는 영광원자력본부를 방문, 원전 안전 상황 등을 점검한다.

국회 산자위에서는 20일 한국산업

**무 담 보
무 보 증**
가계당좌예금수표·차량급전
연락처 010-4408-8911

▲광주·전남 국감 일정

▲19일=전남도교육청, 광주교육청, 전남대 누리사업 시찰.

▲20일=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지사, 경제자유구역청 방

문 및 융촌단사 시찰.

▲20일=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24일=광주고법, 광주고검

▲24일=영광원자력본부

▲25일=전남체신청, 광주기상청

▲25일=전남체신청, 광주기상청, 광주·전남 국립기상관

▲25일=전남체신청, 광주기상청, 광주·전남 국립기상관